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도시재생사업과 장묘시설 연구를 위한 벤치마킹 실시

#01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시재생 및 장묘 연구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도시재생 관련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타 지자체 우수 도시재생사업과 장묘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도시재생 성공모델 개발 및 장묘문화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원시에 위치한 장묘시설 연화장과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수원시 연화장을 방문해서는 관계자로부터 연화장 추진과정 및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시설로 바꿀 수 있을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서는 관계자로부터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도시재생을 통해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도시재생 및 장묘 연구회 회장을 맡은 정판오 의원은 수원 및 군산지역의 사례와 같이 균형발전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도시재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고양시수어문화제에서 수어 공연 펼쳐

#02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9월 6일 화정역 광장에서 개최된 ‘제15회 고양시수어문화제’ 행사에 참여해 수어 공연을 펼쳤다. 고양시수어문화제는 사회적 장벽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농아인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청각-언어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의원들은 수어 공연을 펼치며 그동안 갖고 닳았던 수어 솜씨를 선보였고,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의원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농아인과 수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질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이윤승 의원은 축사에서 “수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막혀있는 소통의 벽을 허물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아름다운 언어”라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농아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고양시의회 수어동아리’를 결성하여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틈틈이 수어 공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